

백령 구경길

구 분	내 용
유 형	테마여행길
지 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일원
코스	<p><탐방로 코스> : (9경길 총66km - 22시간 30분 소요)</p> <p>□ 제1경길 (6Km, 소요시간 - 2시간) ☞ 용기원산 백령 끝 섬 전망대 → 해늬해변 → 동키부대우물 → 백호부대 전적비 → 심청각</p> <p>□ 제2경길 (4.4Km, 소요시간 - 1시간40분) ☞ 하늬해변 → 갈람암포획현무암 → 물범바위 → 고봉포구(사자바위)</p> <p>□ 제3경길 (8.6Km, 소요시간 - 3시간) ☞ 고봉포구 → 사향포구 → 기상대 → 두무진</p> <p>□ 제4경길 (4.1km, 소요시간 - 1시간40분) ☞ 두무진 → 연화리해변</p> <p>□ 제5경길 (11.4km, 소요시간 - 4시간) ☞ 연화리해변 → 중화동교회 → 중화동포구 → 등산로</p> <p>□ 제6경길 (8.2km, 소요시간 - 2시간50분) ☞ 장춘포구(용트림바위, 연봉바위) → 등산로 → → 북포리거리</p> <p>□ 제7경길 (6.6km, 소요시간 - 2시간20분) ☞ 콩돌해변 → 오군포항 →전망쉼터 →등산로</p> <p>□ 제8경길 (7.8km, 소요시간 - 2시간) ☞ 담수호둘레 → 화동염전</p> <p>□ 제9경길 (8.9km, 소요시간 - 3시간) ☞ 용기포북합문화터미널 → 통일염원탑 → 용기포구항 →사곶해변 →사곶 마을 →산림욕장 → 등산로</p> <p>* 기본설계 단계이므로 일부코스 및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지 도	<p>□ 백령 구경(九景)길(전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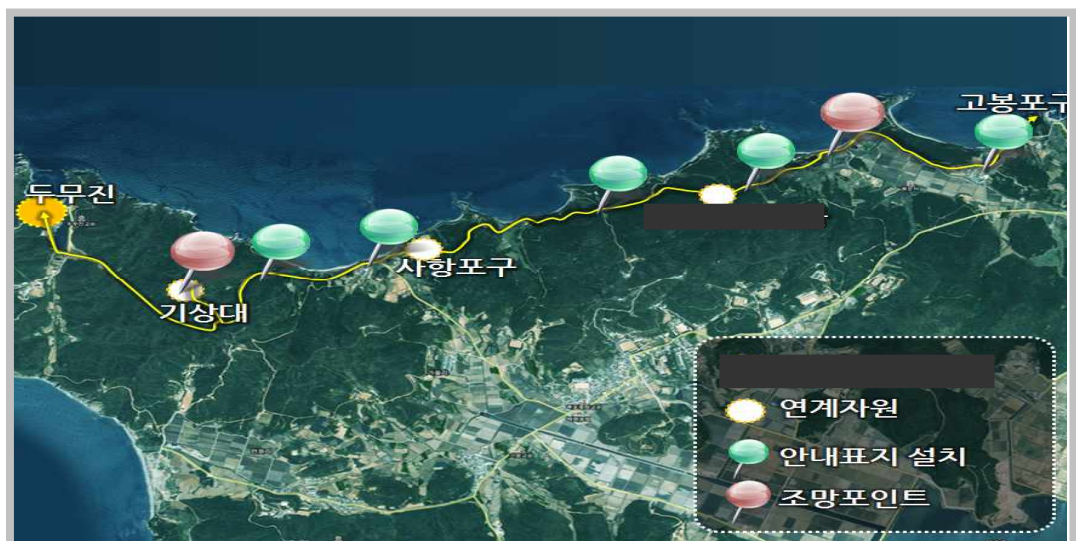
□ 제1경길



□ 제2경길



□ 제3경길



□ 제4경길



□ 제5경길



□ 제6경길



□ 제7경길



□ 제8경길



□ 제9경길



특징

□ 제1경길 [테마:심청]

<코스특징>

용기원산에서 북한 및 해안을 조망할 수 있으며, 진촌리의 마을길을 통과하여 심청각, 동키부대 우물, 패총 등의 역사문화 자원과 이와 연관된 이야기소재를 활용한 코스

<연계자원>

- 동키부대우물 : 이 우물은 6·25동란 당시 이곳 백령도를 중심으로 필사적인 반공투쟁을 전개한 동키부대원들이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백령도 사수를 위해 휴식과 전투준비를 하던 곳의 급수원이며 인근 백령 주민과 함께 긴요하게 사용하였던 우물로 당시 동키부대 한·미 측 대표의 부하사랑과 나라사랑, 그리고 백령도 주민을 위한 위민정신이 깊이 스며있는 곳이다.
- 백호부대전적비 : 서해지역의 요충지 남북을 잇는 관문인 백령도에서 미 극동 사령부 제 8240소속 백호부대는 6.25전쟁 때 민주, 평화와 자유경제 체제수호를 위하여 몸을 던져서 서해지역을 지켰으며, 이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 진촌리 패총 : '진촌리패총'은 웅진군의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선사 시대의 유적이다. 백령면 사무소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진촌리 해안의 구릉 지대 발쪽 아래 표고 10m지점 일대에 걸쳐 위치해 있다. 이 패총은 1958년 서울대학교 학술조사단에서 답사, 보고서를 통해 선사유적지임을 밝힌 곳이다. 패각하층부에서 채집된 타제각편석기편으로 볼 때 백령도에는 이미 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패각층은 굴·섭조개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에 토기편,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 심청전의 무대, 심청각 :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던진 인당수와 심청이 환생했다는 연봉바위 등 백령도가 심청전의 무대였던 사실을 기리기 위해 인당수와 연봉바위가 동시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심청각을 건립하여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함과 아울러 “효” 사상을 함양하고 망향의 아픔을 가진 실향민에게 고향을 그리는 대책사업으로 심청이 환생장면 등을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심청전에 관련된 판소리, 영화, 고서 등을 전시하였다.

□ 제2경길 [테마:물범]

<코스특징>

비교적 완만한 걷기코스로 백령도의 동북쪽 해안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 하늬해변과 갈람암포획현무암, 고봉포구, 사자바위 등의 자원과 비포장의 숲길을 연결

<연계자원>

- 갈람암포획현무암 분포지(천연기념물 제393호) : 백령도 진촌리의 갈람암

포획현무암 분포지는 백령면 진촌리에서 동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해안에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지름 5~10cm 크기의 노란 감람암 덩어리가 들어있는 용암층이 만들어져 있다. 용암층은 두께가 10m 이상이며,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령도 진촌리의 감람암 포획현무암 분포지는 지구 속 수십 km 아래에서 만들어진 감람암이 용암이 분출할 때 함께 올라와 만들어진 것으로 지하 깊은 곳의 상태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 **한반도 유일의 물범 서식지, 물범바위(천연기념물 제331호)** :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인 물범 300마리가 집단 서식하는 곳이다. 1940년대에는 백령도와 중국의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점박이 물범이 8000여 마리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나 점박이 물범이 얼음바다위에서 새끼를 낳기 위해 찾는 중국 보하이 라오둥만 일대가 공단의 공업용 폐수와 생활오수로 오염되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계속되는 불법사냥으로 개체 수는 크게 줄어 현재는 300여 마리 정도만 서해바다에 살고 있다.

□ 제3경길 [테마:실항민]

<코스특징>

고봉포구에서 두무진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관창로)를 활용한 걷기 코스로 사향·포구, 기상대, 심청연꽃마을 등의 연계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철책 너머의 바다경관과 북녘을 조망하면서 걷는 통일기원 코스로 활용

<연계자원>

- **고봉포구** : 옛날에 황해도로 배가 다니던 포구로서, 배로 해삼과 멧게를 채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싱싱한 생선을 제공하며, 또한 주민들이 다시마 말리는 풍경 등을 볼 수 있어 어촌마을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포구로 가는 길의 길옆에 나부끼는 억새 또한 일품이다.
- **사자바위** : 백령도 북쪽해안 고봉포에 자리한 바위로, 마치 사자가 누워 포효하는 자세를 뽐내는 모습 같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백령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 **기상대** :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에는 귀신도 맘대로 섬을 드나들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때문이다. 백령도 기상대에서는 직원 15인이 바로 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상태 예측을 위하여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기상상황을 체크한다. 새벽5시부터 지상관측, 위성관측, 레이더 관측 등 각기 맡은 부분의 기상상태를 보고하고 위성 구름사진을 시시각각 체크하며 기상대장의 최종 결정이 떨어지면 여객터미널에 기상상태가 전달된다.

□ 제4경길 [테마:백령어부]

<코스특징>

두무진부터 연화리 해변으로 이어지는 비포장길과 두무진 해상관람 코스를 연계한 코스로 서쪽 해안 절벽의 뛰어난 경관을 감상하며 걷는 코스로 개발

<연계자원>

- 황해의 해금강, 두무진(명승 8호) : 백령도의 북서쪽에 있는 포구로 1997년 12월 30일 명승 제8호로 지정되었다. 두무진이라는 이름은 뾰족한 바위들이 많아 생긴 모양이 마치 머리털 같다고 하여 두모진(頭毛鎭)이라 부르다가 후에 장군머리 같은 형상이라 하여 두무진으로 개칭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주로 사암과 규암으로 되어 있으며, 층리(層理)가 잘 발달하여 곳에 따라 사층리(斜層理)의 물결자국이 관찰된다. 오랫동안 파도에 의해 이루어진 병풍같이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가지각색의 기암괴석이 솟아 있어 금강산의 만물상과 비견되어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린다. 특히 선대바위는 1612년(광해군 5) 백령도로 귀양 온 이대기(李大期)가 《백령도지(白翎島誌)》에서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 제5경길 [테마:천안함]

<코스특징>

연화리 해변을 기점으로 서쪽 해안절벽의 비포장길과 중화동교회, 중화동 포구, 등산로를 연계한 코스로 천안함 사고 지점의 전망이 가능하여 안보걷기코스로 활용

<연계자원>

- 중화동포구 : 아담하고 한적한 어촌마을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중화동 방파제 입구에 마치 절벽을 칼로 잘라낸 듯한 틈으로 길을 내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며, 포구 부근 해안의 검은 바위들은 용암 분출로 생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있다.
- 한국 기독교 전파의 산실, 중화동교회 : 1896년에 세워진 중화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이다. 역사적 가치가 큰 성지로 교회 발전사를 재조명함은 물론 관광성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바로 옆에 위치한 백령기독교역사관은 100년 넘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 제6경길 [테마:해병대]

<코스특징>

군사 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춘포구와 북포리 당후길을 연결하는 해병대 이야기를 주테마로 하는 걷기코스

<연계자원>

- 연봉바위 : 장춘 앞바다에 있는 바위로 효녀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몸을 던진 뒤 한 송이의 연꽃으로 변하여 이 장춘 앞의 바위 위로 떠밀렸다 하여 연봉이라고 한다고 전한다. 또한 연봉하면 장춘 앞

바다의 대명사로도 쓰인다고 하며 이 연봉이 장촌 앞을 막아주는 형국이라고도 한다.

- **남포리 습곡구조**(천연기념물 제507호) : 백령도 남포리 장촌해안의 단층 및 습곡구조는 장촌포구 서쪽해안 약 300m 지점인 용트림 바위 바로 건너편 해안절벽에 있으며, 그 규모는 높이 약 50m, 길이 약 80m 정도이다. 이 단층 및 습곡구조는 백령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선캄브리아기 백령층군의 장촌층이 동아시아 일대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고생대 말~중생대 초의 지각변동으로 형성되었다. 즉 지하 깊은 곳의 횡압력으로 변성 및 변형작용을 받아 습곡 및 단층이 이루어진 후, 지각이 풍화 및 침식되면서 서서히 융기되어 지금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큰 규모의 단층 및 습곡구조는 매우 드문 일로서, 이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한반도의 지각 발달사를 규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형성에 관한 지구과학적 현상과 역할은 학생들의 현장학습과 일반인들의 자연체험 및 관광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7경길 [테마:콩돌]

<코스특징>

콩돌해변을 시작으로 오군포항, 등산로를 연결하는 코스로 콩돌 맨발 걷기체험과 등산로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백령도의 희귀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는 코스

<연계자원>

- **콩돌해변** : 백령도의 지형과 지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곳 중의 하나로 해변에 둥근 자갈들로 구성된 퇴적물이 단구상 미지형으로 발달한 해안이다. 콩돌해안은 백령도 남포동 오금포 남쪽해안을 따라 약 1Km정도 형성되어 있고 내륙 쪽으로는 군부대의 해안초소와 경계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둥근 자갈들은 백령도의 모암인 규암이 파쇄 되어 해안의 파식작용에 의하여 마모를 거듭해 형성된 잔자갈들로 콩과 같이 작은 모양을 지니고 있어 콩돌이라 하고, 색상이 백색, 갈색, 회색, 적갈색, 청회색 등으로形形色색을 이루고 있어 해안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콩알만한 크기의 작고 둥근 자갈들이 해안에 지천으로 깔린 화동의 콩돌해변은 그 돌을 밟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경험이며 맑고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룬 이색적인 해변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덕분에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해변이다.

□ 제8경길 [테마:백령전설]

<코스특징>

담수호 주변과 화동염전을 연결하는 코스로 담수호의 경관 및 겨울철 담수호를 찾는 철새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

<연계자원>

- **서해최북단비** : 용기포구의 사곶해변을 따라 콩돌해안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백령 유일의 다리인 백령대교가 있는데 이 백령대교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담수호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중간쯤에 바로 이 서해최북단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비는 백령도가 우리나라 서해의 최북단임을 말해주는 비석이다.
- **화동염전** : 백령도의 유일한 천일염전으로 소금 맛이 좋아 까나리 액젓과 김치를 담그는데 사용하며 그 맛이 일품이다

□ 제9경길 [테마:백령문화]

<코스특징>

용기포 터미널을 기점으로 하여 사곶해변, 사곶마을 등산로를 연결하는 코스로 사곶마을의 배후리체험, 사곶냉면의 향토자원과 연계

<연계자원>

- **통일염원탑** : 용기포에 우뚝 솟은 이 돌탑은 통일을 염원하는 소망을 돌 하나하나에 담기는 정성으로 쌓아 올렸다. 백령도 이곳은 하늘 끝, 바다의 섬, 그리고 깊이 묻어둔 고향의 끝 동네이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깨끗한 섬, 심청이의 숨결이 배어있는 땅, 저 멀리 북녘 땅 황해도 장산곶과 희미하게나마 하얀 파도가 내려다보이는 인당수, 넓고 푸른 서해의 바다와 백령도를 수호하며 풍요한 삶을 위해 화합, 단결하고 노력하는 섬 주민들의 염원을 표상하였다.
- **사곶해변** : 천연기념물 제 391호로 지정된 사곶 해변은 전 세계에 2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으로 나폴리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곳이다. 한때 군부대 비행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이곳은 고운 모래알맹이들이 넓이 300m 길이 3Km의 넓은 백사장을 이루고 있어 피서지로서 세계최고를 자랑한다. 주변에는 돌들이 콩알만 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콩돌해안. 서해의 해금강이라 일컫는 두무진이 있고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 심청각, 연봉바위 등은 백령면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또한, 백령면 주변에서는 어느 곳에서 낚시를 해도 우럭, 놀래미, 광어, 농어들이 잡히고 있고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두무진을 배타고 관광하다 보면 어느덧 상념과 잡념들은 없어지고 감탄사만이 관광객을 사로잡게 된다.

□ 음식 · 특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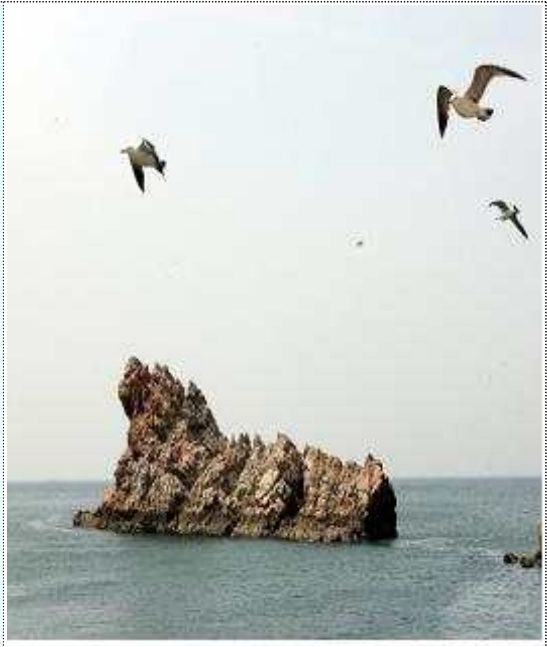
- **영양만점, 담백한 까나리 액젓** : 백령도 부근 청정해역 모래밭에서 산란하고 서식하는 바다고기 까나리를 이용해 만들고, 필수아미노산 중 7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비린 맛이 나지 않아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 **깨끗한 해풍과 해무를 머금고 자란 백령 약쭈** : 백령 약쭈의 본래명칭은 싸주아리 쭈으로써, 농약이나 비료 대신에 해풍과 해무를 가득 맞으며 야생 그대로 자란 백령도의 싸주아리 쭈는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 **바다의 불로초, 돌다시마** : 백령도 주변 해역은 연중 최고수온이 22℃를 유지해 여름에도 양질의 다시마를 생산할 수 있으며,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p>다시마는 최상의 영양 상태를 자랑한다.</p> <p>○ 땅의 과일, 고구마 : 백령도의 하얀 고구마는 지과(地果, 땅과일)라 불리는 독특한 재래품종으로, 여타 종에 비해 수분함량이 많아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우며 당도가 높다.</p>
사 진	<p>□ 제1경길</p> <div data-bbox="331 454 874 1097" data-label="Image"> </div> <p>심 청 각</p> <div data-bbox="879 454 1422 1097" data-label="Image"> </div> <p>하 니 해 변</p>
	<p>□ 제2경길</p> <div data-bbox="331 1240 874 1883" data-label="Image"> </div> <p>물 범 바 위</p> <div data-bbox="879 1240 1422 1883" data-label="Image"> </div> <p>감 람 암 포 획 현 무 암</p>

□ 제3경길



기 상 대



사 자 바 위

□ 제4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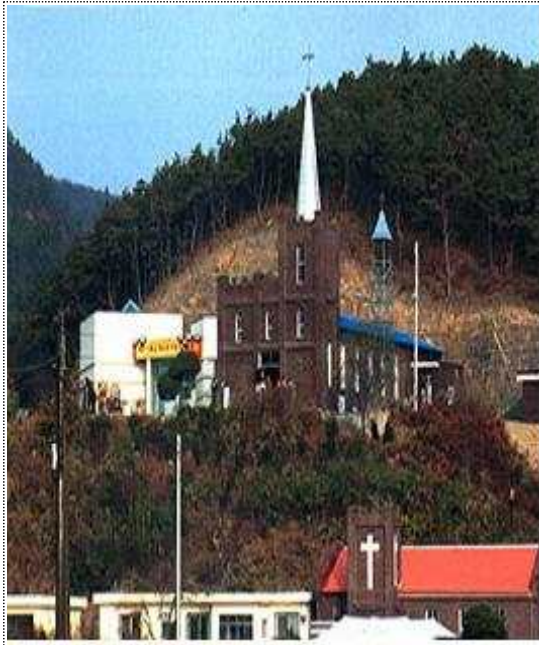


두 무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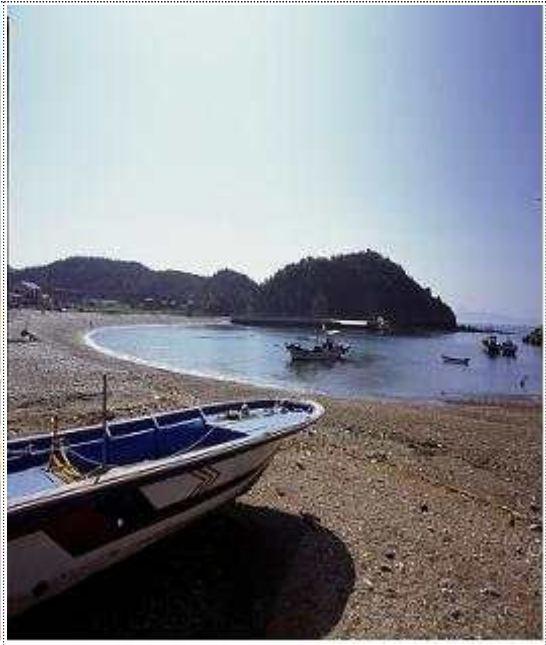


연 화 리 해 변

□ 제5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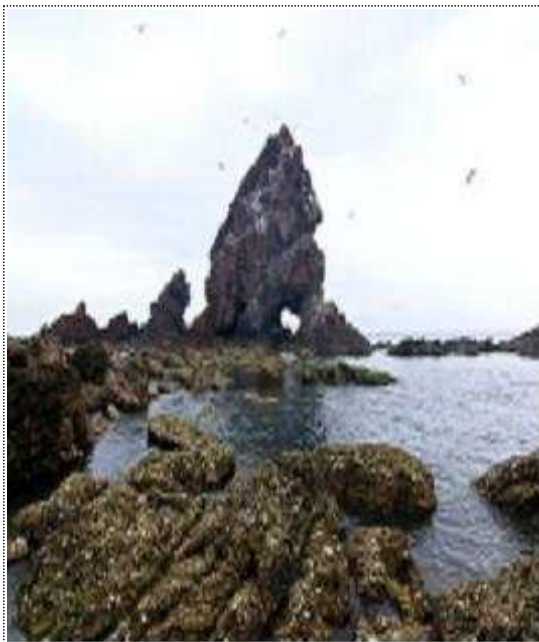


중화동교회 (기독교역사관)



중 화 동 포 구

□ 제6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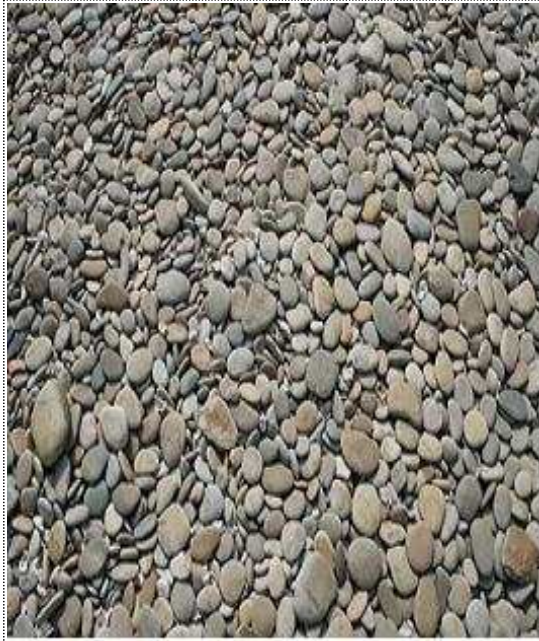


연 봉 바 위



남포리 습곡구조

□ 제7경길



콩 돌 해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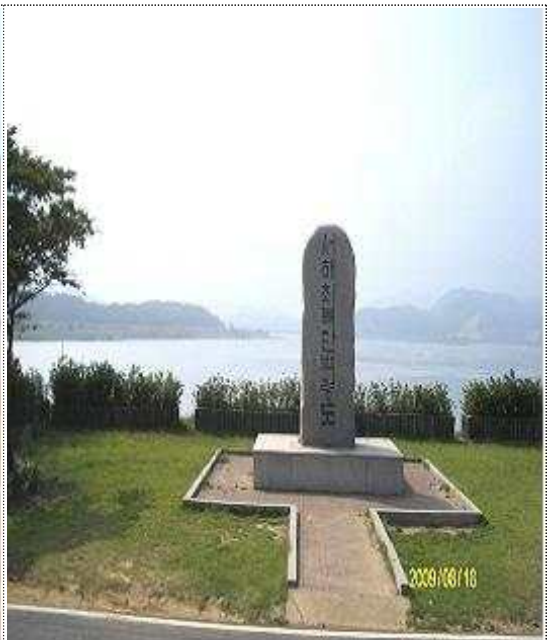


오 군 포 항

□ 제8경길



화 동 염 전



서해최북단비

□ 제9경길



통일염원탑



사곶해변